

애착과 다섯가지(Big Five) 성격특성들의 관계

장 휘 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과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다섯가지(Big Five) 성격특성 및 자아탄력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단일문항으로 구성된 4범주의 애착척도에 의해 대학생들의 내적 작동모델이 분류되었고 IPPA를 사용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측정되었으며 다섯가지 성격특성과 자아탄력성의 측정을 위해 Costa와 McCrae의 검사에 기초한 한국판 성격검사와 Block과 Kremen(1996)의 자아탄력성검사가 사용되었다. 남녀 모두 세가지 성격특성에서 내적 작동모델에 따른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안정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이 불안정한 애착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보다 정서적 불안정성 수준이 더 낮고 더 강한 외향성과 호감성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될 수 있었다. 그러나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자아탄력성에서는 여학생들만이 안정형 애착과 안정되지 못한 작동모델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고 성실성에서는 남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모두 남녀 대학생들의 성격특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 자아탄력성을 포함하여 남녀 대학생들의 성격특성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영아기 동안 형성된 부모에 대한 애착은 내적 작동모델의 형태로 성인기까지 계속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다양한 발달에 영향을 준다(장휘숙, 2000a, b; Kemp & Neimeyer, 1999; Kobak 등, 1993; Bartholomew & Horowitz 1991; Hazan & Shaver, 1987).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이란 자기와 타인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나 기대로서 양육자의 반응성과 접근가능성을 바탕으로 형성된다(Bowlby, 1979). 즉 반응적이고 민감한 양육제공자를 갖는 아동은 타인을 신뢰할 수 있고 활용가능한 존재로 지각하는 동시에 아동 자신은 타인의 애정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기대를 형성한다. 반면, 애착인물을

* hsjang@cnu.ac.kr

활용불가능하고 예측할 수 없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영아는 타인은 신뢰할 수 없고 활용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는 타인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는 기대를 형성하게 된다.

일찍이 Bowlby(1979)는 양육자와의 애착역사는 개인이 자기와 타인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일관성있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기 때문에 개인의 성격발달에도 영향을 준다고 제안하였다. 다시 말하면 영아기의 애착관련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 심리적 특성들은 개인의 성격특성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들면, 양육자가 일관성 있게 반응적이고 활용가능하다고 지각한 영아는 스스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있는 개인으로 자신을 인식할 것이므로 그의 성격은 보다 긍정적이고 적응적 특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대조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애착을 형성한 영아들은 애착인물을 안전기지로 활용할 수 없고 위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불안이나 분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들의 성격은 보다 부정적이고 부적응적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

영아나 유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초기의 애착 연구들(Kobak, 1986; Sroufe, 1983; Mastas, Arend, & Sroufe, 1978)은 안정된 애착을 지니고 있는 영아나 유아들은 문제해결 상황에서 긍정적 정서를 나타내고 열성적이며 강한 인내심을 보이는 동시에 더 큰 자아탄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불안/양가적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영아들은 두려움이 많고 충동적이며 강한 분노와 슬픔을 나타내는 반면, 회피적 영아들은 분노나 슬픔과 관련된 정서표현을 차단하는 전략을 채택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안정된 애착은 부정적 정서를 건설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과 개인의 성격특성이 관련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과 정서조절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Kobak과 Sceery(1988)는 성인애착면접을 사용하여 대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측정하고 연구대상자 자신과 친구평정을 이용하여 개인의 다양한 성격특성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안정형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은 더 적은 슬픔을 나타내고 친구들에 의해 더 많이 자아탄력적이며 유의하게 낮은 불안과 적대감 수준을 지니고 있다는 평정을 받았다. 그러나 거부형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대학생들은 더 많은 외로움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들은 친구들에 의해 적대감 수준이 높고 자아탄력성이 낮다는 평정을 받았으나 사회적 능력이나 괴로움에 대한 자기보고는 안정된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집단과 다르지 않았다. 한편 몰입형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대학생들은 더 높은 수준의 개인적 슬픔을 보고하였으며 친구들에 의해 더 많이 불안하고 더 적은 자아탄력성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므로 Kobak과 Sceery의 연구는 안정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청년기 동안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외부적 도전에 직면했을 때 당황함이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큰 자아탄력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며 적대감과 불안수준이 낮은 성격특성을 지닐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조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은 부정적 정서를 합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써 더 많이 불안하고 적대적이며 낮은 수준의 자아탄력성으로 구성된 성격특성을 지닐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Kobak과 Sceery의 연구외에도 성인의 낭만적 사랑을 애착과정으로 설명한 Hazan과 Shaver(1987)와 4범주로 구성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제안한 Bartholomew와 Horowitz(1991) 그리고 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을 비교한 장휘숙(1997a) 모두, 회피적 및 불안/양가적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은 안정된 개인들보다 우울과 불안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특히 회피적 집단의 개인들은 내향성이나 복종성과 관련된 대인관계 문제에서 고통을 겪으면

서도 그들의 부정적 정서를 억압하고 부정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애착과 죽음불안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들(장휘숙, 2000c; Mikulincer 등, 1990)도 안정되지 못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대학생들이 더 강한 죽음의 공포를 갖는다고 보고함으로써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 따라 성격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였다.

애착과 다섯가지(Big Five) 성격특성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가 있다. Shaver와 Brennan(1992)은 Hazan과 Shaver(1987)의 3범주 애착척도를 사용하여 성인의 애착양식을 측정하고 5요인모델(Five-Factor Model)의 차원척도인 NEO 성격검사(NEO Personality Inventory: NEO-PI)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NEO 성격검사를 개발한 Costa와 McCrae(1985; McCrae & Costa, 1989a, b)는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성격의 많은 구성개념들은 NEO-PI의 다섯 개 주요 특성들 즉, 정서적 불안정성(neuroticism), 외향성(extraversion),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호감성(agreeableness) 및 성실성(conscientiousness) 중의 하나나 그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McCrae와 Costa(1990)에 의하면, 정서적 불안정성은 불쾌하고 혼란스러운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성을 의미하며 외향성은 대인간의 온정과 사교성 및 주장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또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새로운 생각과 경험에 대한 접근이나 수용성에 해당하고, 호감성은 타인에 대한 신뢰와 관심 및 관대한 정서를 의미하며 그리고 성실성은 조직과 성취에 대한 개인의 성실한 정도를 나타낸다.

연구결과 안정된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대학생들은 불안정한 내적 작동모델을 갖는 대학생들보다 더 낮은 수준의 정서적 불안정성과 더 높은 수준의 외향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회피적 연구대상자들보다 더 동조적이었으나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성실성 척도에서는 내적 작동모델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불안/양가적 내적 작동모델을 갖는 대학생들은 회피적 작동모

델의 소유자들보다 약간 더 신경과민적이고 외향적이며 동조적이기는 하였지만, 두 개의 불안정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판별함수분석결과에서도 NEO-PI 척도들은 안정된 애착의 작동모델과 불안정한 애착의 작동모델에 의해서만 구분될 뿐 두 개의 안정되지 못한 애착의 작동모델에 의해서는 구분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애착과 성격특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Kerns와 Stevens(1996)는 대학생들이 보고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그들의 성격에 대한 친구평정의 관련성을 연구하고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선 남자 대학생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버지-남자 대학생간의 애착은 성격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즉 아버지에 대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남학생들은 친구들로부터 덜 적대적이고 자기저통제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며 높은 자아탄력성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남자 대학생들의 아버지에 대한 높은 애착은 더 강한 성격발달과 연합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그들의 성격특성과 아무런 상관성이 없었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성격특성간의 관계에서는 단지 하나의 유의한 부적 상관성이 도출되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여학생간의 높은 애착은 자아탄력성과 부적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어머니에 대해 낮은 애착을 갖는 여학생들이 친구들에 의해 더 자아탄력적으로 지각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Kerns와 Stevens의 연구는 동성부모에 대한 애착만이 개인의 성격특성과 유의한 관련이 있을 뿐아니라 남자 대학생들의 경우에만 애착과 성격특성간에 일관성있는,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과 개인의 성격특성간에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하지만, 이 연구들에서 사용된 척도들과는 다른 척도를 사용하여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측정해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그 이유는 Shaver와 Brennan (1992)은 Hazan과 Shaver(1987)의 3범주

애착척도를 사용하여 개인의 애착양식을 측정하였으나, 선행연구들(장휘숙, 1997a; Griffin & Bartholomew, 1994; Bartholomew & Horowitz, 1991)은 3범주(안정형, 불안/양가형, 회피형) 애착척도보다 회피형 애착을 더 세분화하는 4범주(안정형, 몰입형, 두려워하는/회피형, 거부적/회피형) 애착척도가 개인의 내적 작동모델을 더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Kerns와 Stevens(1996)는 Collins와 Read(1990)의 성인애착 질문지를 변형하여 대학생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을 측정하였으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들(가까운, 의존적, 불안) 중 어머니 척도의 불안요인(.50)과 아버지 척도의 불안요인(.62) 그리고 어머니 척도의 가까운 요인(.63)과 아버지 척도의 가까운 요인(.69)들의 신뢰도 계수가 낮아 연구결과의 타당성이 의문시된다는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4범주의 애착양식척도와 Costa와 McCrae의 NEO-PI에 기초한 한국판 성격검사(노동부, 2000)를 사용하여 애착과 다섯가지(Big Five) 성격특성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동시에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하고 Paterson 등(1994)이 수정하여 사용한 IPPA로써 대학생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을 측정하고 다섯가지 성격특성들과의 관계를 연구하려고 한다. 또한 NEO-PI에는 자아탄력성 요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의 자아탄력성을 성격유형으로 정의한 Block과 Kremen(1996)의 척도를 사용하여 개인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고 애착과의 관계도 함께 규명하려고 한다.

문제는 Shaver와 Brennan(1992)은 다섯가지(Big Five)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NEO-PI에서 작은 성차가 발견되었으나 애착과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개인의 성을 무시하였다고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erns와 Stevens(1996)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과 성격특성간에 성차가 존재한다는 차이하는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인애착면접을 사용하여 3범주 혹은 4범주의 애착을 연구한 결과들 중에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는 연구들(Bartholomew & Horowitz, 1991; Kobak & Sceery, 1988)이 있을 뿐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과 관련변인들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들(장휘숙, 1997b; Paterson 등, 1994, 1995)은 일관성있게 유의한 성차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성은 애착과 성격특성과의 관계에 차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현재의 애착양식에 해당하는 개인의 내적 작동모델에서는 Shaver와 Brennan의 결과대로 성차가 없다고 할지라도, 남녀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해 갖는 애착정도는 개인의 발달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더욱이 남성과 여성들은 상이한 성유형화 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남녀의 성격특성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 연구는 개인의 성이 애착과 성격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 가도 함께 확인하려고 한다. 이 연구에서 규명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남녀 대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과 다섯가지(Big Five) 성격특성들은 어떤 관계를 갖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은 남녀 대학생들의 다섯가지(Big Five) 성격특성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 및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은 남녀 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지방 국립대학교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남녀 대학생들이 연구대상자로 표집되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을 누락하거나 부모 중 어느 한편이 부재한 학생들을 제외한 최종 분석대상자는 전체 607명으로서 그 중 여학생은 342명, 남학생은 265명이었다. 검사는 심리학개론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담당교수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검사실시시간은 약 40분이 소요되었다. 여학생들의 평균연령은 19.66세(SD=1.29)였고 남학생들의 평균연령은 20.95세(SD=2.57)였다. 7)였다.

2. 척도

1) 애착척도

① 4범주 애착척도

Bartholomew와 Horowitz(1991)가 제작한 단일문항의 4범주 애착척도가 사용되었다. 이성이나 친구 혹은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현재의 애착양식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이 척도는 두 개(긍정적, 부정적)의 자기모델과 두 개(긍정적, 부정적)의 타인모델을 기초로 안정형, 몰입형, 두려워하는/회피형 그리고 거부적/회피형의 4가지 애착양식을 구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안정형 작동모델은 자기모델과 타인모델이 모두 긍정적인 반면, 두려워하는/회피형은 두 개의 모델이 모두 부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몰입형 작동모델은 부정적 자기모델과 긍정적 타인모델을 그리고 거부적/회피형 작동모델은 긍정적 자기모델과 부정적 타인모델을 갖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응답자들은 네가지 애착양식 각각을 설명하는 문장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7점 척도상에 표시한 다음, 네가지 애착양식 중 자신과 가장 잘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양식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7점 척도상에 응답한 결과와 네가지 양식 중 하나를 선택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거나 하나 이상의 애착양식에 대해 동일한 점수를 표시한 연구대상자들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②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척도

Armsden과 Greenberg(1987)에 의해 개발된 원래의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구분하지 않고 28개의 부모문항과 25개의 동년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및 동년배를 분리하여 각각 25문항씩 동일한 내용을 질문한 Paterson, Field 그리고 Pryor(1994)의 방식을 그대로 채택하면서도 어머니와 아버지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질은 신뢰와 의사소통 점수의 합에서 소외점수를 뺀 점수로 계산하였다. Paterson, Pryor 그리고 Field(1995)의 연구에 나타난 어머니와 아버지 애착문항들의 내적 일관성계수(Cronbach alpha)는 각각 .94, .94였고 이 연구에서는 .90와 .89였다.

2) 다섯가지(Big Five) 성격특성의 측정

다섯가지(Big Five)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에서 제작한 직업선호도검사(L형) 중 성격검사를 사용하였다. 원래 Costa와 McCrae(1985)에 개발되고 NEO 성격검사(NEO Personality Inventory: NEO-PI)로 불리워지는 이 검사는 다섯 개의 성격특성을 측정한다. 즉 정서적 불안정성(neuroticism), 외향성(extraversion),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호감성(agreeableness) 그리고 성실성(Conscientiousness)이 그것이다. 이 다섯 개의 척도 중 정서적 불안정성,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척도는 6개의 하위척도를 포함하고 호감성과 성실성은 1985년도 판에서는 하위척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전체 18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NEO-PI의 1990년도판에 기초한 노동부(2000) 검사는 5개의 성격특성(정서적 불안정성,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호감성, 성실성)과 28개의 하위척도를 포함하며 전체 18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88개 문항 중 13개의 문항은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이고 3개의 문항은 부주의 척도이며,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3) 자아탄력성 척도

자아탄력성을 하나의 성격유형으로 가정한 Block과 Kremen(1996)의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scale: ER 89)가 사용되었다. 대학생용으로 제작된 이 검사는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상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계수(Cronbach alpha)는 Block과 Kremen 연구의 18세와 23세 집단에서 모두 .76이었고 이 연구에서는 .78이었다.

결과 및 해석

1.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과 다섯가지(Big Five) 성격특성들의 관계

애착과 성격특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남녀 대학생들의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확인한 결과, 남녀 모두 안정형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남: 50.19%; 여:

47.66%) 그다음에 몰입형 작동모델(남: 30.19%; 여: 31.29%), 두려워하는/회피형(남:10.94%; 여:16.37%) 그리고 거부적/회피형 작동모델(남: 8.68%; 여: 4.68%) 순이었다. 남녀 학생들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X^2(3)=7.119, p>.05$),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몰입형과 두려워하는/회피형 작동모델의 비율이 더 높고 거부적/회피형 비율은 더 낮은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다섯 개의 성격특성들(정서적 불안정성,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호감성, 성실성) 중 정서적 불안정성에서만 남녀간에 차이가 있었다. 즉 여학생들의 정서적 불안정성 점수가 남학생들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므로($t=2.84, p<.01$) 정서적 불안정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에서의 성차도 확인하였다. 여섯 개의 하위요인들(불안, 분노, 우울, 자의식, 충동성 그리고 스트레스 취약성) 중 분노($t=2.03, p<.05$), 우울($t=3.37, p<.01$) 그리고 스트레스 취약성($t=3.34, p<.001$)에서 여학생들의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정서적으로 더 불안정하고 남학생들보다 높은 분노와 우울 그리고 스트레스 취약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차의 가능성과 정서적 불

표 1.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 따른 성격특성들(남학생)

구분	안정형 (1범주)	몰입형 (2범주)	두려워하는/ 회피형(3범주)	거부적/ 회피형(4범주)	F값과 사후분석
정서적 불안정성	103.7(19.5)	110.7(18.3)	112.3(17.4)	108.4(15.4)	3.01* 1-3
외향성	105.1(14.7)	98.88(13.4)	92.86(14.9)	95.68(14.1)	8.03*** 1-2,1-3,1-4
경험에 대한 개방성	99.85(11.9)	99.79(11.7)	97.79(9.53)	95.65(10.2)	1.08
호감성	114.3(11.5)	112.3(11.8)	110.4(11.4)	107.3(12.7)	2.77* 1-4
성실성	150.5(22.7)	145.4(20.8)	138.7(21.3)	146.9(20.5)	2.40

* p<.05, ** p<.01, *** p<.001 이하 동일함

안정성에서 나타난 유의한 성차를 고려하여 후속 분석에서는 남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1>은 남자 대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4범주의 내적 작동모델과 성격특성들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사후분석으로 Bonferroni 검증을 실시한 결과도 F값과 함께 제시하였다.

<표 1>에 의하면, 다섯 개의 성격특성들 중 정서적 불안정성과 외향성, 그리고 호감성에서 애착범주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으로 Bonferroni 검증을 실시한 결과, 안정형 집단이 두려워하는/회피형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낮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나타내었고 몰입형 집단, 두려워하는/회피형 집단 그리고 거부적/회피형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외향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거부적/회피형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호감성을 나타내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몰입형, 두려워하는/회피형 그리고 거부적/회피형 내적 작동모델에 따라 성격특성이 구분되지는 않았지만, 안정형과 안정되지 못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 따라서는 성격특성이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아니라 안정형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남자 대학생들은 낮은 수준의 정서적 불안정성과 높은 수준의 외향성 그리고 호감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표 2>는 여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 따른 다섯가지 성격특성들의 결과를 제시한다.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 따라 정서적 불안정성,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호감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후분석으로 Bonferroni 검증을 실시한 결과, 안정형 집단이 몰입형 집단과 두려워하는/회피형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낮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몰입형 집단은 거부적/회피형 집단보다 그리고 두려워하는/회피형 집단은 거부적/회피형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나타내었으며 네 개의 내적 작동모델 중 몰입형 집단이 가장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나타내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몰입형 작동모델은 부정적 자기모델과 긍정적 타인모델을 지니고 있고 거부적/회피형 집단은 긍정적 자기모델과 부정적 타인모델을 그리고 두려워하는/회피형 집단은 두 개의 모델이 모두 부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기모델이 부정적인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나타낸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안정형 집단은 몰입형 집단과 거부적/회피형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외향성을 지니고 있고 몰입형 집단이나 두려워하는/회피형 집단보

표 2.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 따른 성격특성들(여학생)

구분	안정형 (1범주)	몰입형 (2범주)	두려워하는/ 회피형(3범주)	거부적/ 회피형(4범주)	F값과 사후분석
정서적 불안정성	104.6(16.9)	119.7(16.5)	117.7(17.8)	104.3(13.8)	20.39*** 1-2,1-3,2-4,3-4
외향성	109.5(13.8)	97.12(13.1)	91.45(12.5)	96.00(20.3)	31.89*** 1-2,1-3,1-4
경험에 대한 개방성	103.6(13.4)	96.96(11.5)	98.31(13.1)	101.1(12.7)	6.27** 1-2,1-3
호감성	113.9(12.2)	111.4(13.1)	108.9(13.0)	102.1(12.0)	5.06** 1-4
성실성	149.7(21.5)	143.2(19.6)	147.9(18.8)	148.6(24.8)	2.07

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그리고 거부적/회피형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호감성을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면 외향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호감성에서는 안정형 집단과 안정되지 못한 집단간에만 차이가 있을 뿐 세 개의 안정되지 못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가지 성격특성 변인들이 네가지 애착범주를 유의하게 구분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3범주와 4범주의 사례수가 지나치게 적어 판별분석의 통계적 가정에 적합하지 않았으므로 네 개의 애착범주로써 판별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고 애착범주를 안정한 유형과 불안정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다시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들의 경우, 정준상관계수는 0.29(Wilks' Lambda_(5, 259))=0.9146, p<.001)였고 다섯가지 성격특성변인들에 의해 생성된 판별함수식은 안정한 유형을 정확하게 판별한 비율이 63.64%, 불안정한 유형을 정확하게 판별한 비율이 59.26%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들의 경우, 정준상관계수는 0.54(Wilks' Lambda_(5, 336))=0.7085, p<.0001)였고 안정한 유형을 정확하게 판별한 비율은 75%, 불안정한 유형을 정확하게 판

별한 비율은 80.25%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는 네 개의 내적 작동모델에 따라 성격특성들이 구분되지는 않지만,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안정형 집단과 안정되지 못한 집단의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 따라 성격특성들이 구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학생들의 성격특성이 남학생들의 성격특성보다 애착유형에 의해 더 효과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2.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다섯가지(Big Five) 성격특성들의 관계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남녀 대학생들의 다섯가지 성격특성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변인들 사이의 상호상관을 계산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학생들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성격특성의 모든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우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역상관을 나타냈고 또한 정서적 불안정성은 나머지 네 개의 성격특성들과 역상관의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제

표 3. 남녀 대학생들의 어머니 및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성격특성들간의 상호상관

	어머니 (1)	아버지 (2)	정서적 불안정성 (3)	외향성 (4)	경험에 대한 개방성 (5)	호감성 (6)	성실성 (7)
(1)		0.4535 ***	-0.3243 ***	0.3182 ***	0.1938 **	0.1356 *	0.2953 ***
(2)	0.5698 ***		-0.3022 ***	0.2700 ***	0.1267 *	0.0600	0.2603 ***
(3)	-0.3943 ***	-0.3583 ***		-0.3540 ***	-0.1284 *	-0.3126 ***	-0.3385 ***
(4)	0.3619 ***	0.3965 ***	-0.4179 ***		0.4155 ***	0.1691 **	0.2874 ***
(5)	0.1911 **	0.1967 **	-0.2347 ***	0.4114 ***		0.1302 *	0.3386 ***
(6)	0.2958 ***	0.2618 ***	-0.4494 ***	0.1919 **	0.2151 ***		0.0240
(7)	0.3691 ***	0.3067 ***	-0.5325 ***	0.4247 ***	0.4769 ***	0.2585 ***	

* 대각선 아래 남학생 자료, 대각선 위 여학생 자료

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낮은 수준의 정서적 불안정성과 높은 수준의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호감성 및 성실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여학생들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호감성의 관계만을 제외하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성격특성의 모든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역상관을 나타내었고 정서적 불안정성은 네 개의 다른 성격특성들과 역상관의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남학생들과 동일한, 타당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어머니에 대해 높은 애착을 갖는 여자 대학생들은 낮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나타내고 높은 외향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호감성 그리고 성실성을 지니고 있으며 아버지에 대해 높은 애착을 갖는 여학생들은 낮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높은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및 성실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다섯 개의 성격특성에 미치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영향정도를 규명하기 위하여 남녀 학생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학생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정서적 불안정성을 나타내지만,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남학생들의 정서적 불안정성과 더 큰 관련성을 지니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성실성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만이 유의한 설명량을 가짐으로써 어머니에 대해 높은 애착을 갖는 남자 대학생들이 경험에 대한 높은 개방성과 성실성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향성과 호감성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유사한 β 값을 나타냄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 모두 남자 대학생의 외향성과 호감성에 영향을 준다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여학생들의 경우에도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정서적 불안정성에 영향을 주고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높은 애착을 갖는 여자 대학생들이 더 낮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 여학생들의 정서적 불안정성과 더 큰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외향성과 성실성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모두 유의한 β 값을 갖기는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 더 큰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만이 유의한 설명량을 나타냄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여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크다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또한 여학생들의 호감성과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서로 관련이 없어 남학생들과는 차이를 보였다.

요약하면 남녀 대학생들의 성격특성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녀 대

표 4. 남녀 대학생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에 따른 회귀분석결과(표준화된 계수: β)

		정서적 불안정성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호감성	성실성
남학생	어머니애착	-.32***	.26***	.14*	.18*	.30***
	아버지애착	-.16*	.25***	.11	.18*	.12
	R ²	0.19	0.21	0.05	0.10	0.15
여학생	어머니애착	-.22***	.24***	.18**	.12	.21***
	아버지애착	-.17**	.14*	.07	.01	.13*
	R ²	0.11	0.10	0.05	0.02	0.09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남학생의 성실성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흥미롭게도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남자 대학생들의 호감성에는 영향을 주나 여자 대학생들의 호감성과는 상관이 없었다.

3.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과 자아탄력성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애착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전에 자아탄력성에서 남녀 성차를 확인한 결과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높은 자아탄력성을 지니고 있었다($r=2.57, p<.05$). 그에 따라 남녀 대학생들을 분리하고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과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남학생들은 애착의 작동모델에 따라 자아탄력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F_{(3,261)}=1.05, p>.05$) 여학생들은 애착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_{(3,338)}=16.14, p<.001$). 사후분석으로 Bonferroni검증을 실시한 결과, 안정형 내적 작동모델을 갖는 여학생들이 몰입형이나 두려워하는/회피형 내적 작동모델을 갖는 여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자아탄력성을 지니고 있었다.

남녀 대학생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상관을 계산하였다. 남녀 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남: $r=0.2721, p<.001$; 여: $r=0.2709, p<.001$)은 물론 아버지에 대한 애착(남: $r=0.2548, p<.001$; 여: ($r=0.2349, p<.001$)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남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만 (β 값=0.24, $p<.01$) 이 그리고 여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β 값=0.21, $p<.001$)은 물론 아버지에 대한 애착(β 값=0.16, $p<.01$)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R^2=0.10$). 물론 여학생들의 경우에도 어머니에 대

한 애착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 자아탄력성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논 의

이 연구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과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다섯가지(Big Five) 성격특성들 및 자아탄력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4범주 애착척도를 사용하여 남녀 대학생들의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측정하는 동시에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하고 Paterson 등(1994)이 수정한 IPPA를 사용하여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점수화하였다. 다섯가지 성격특성들은 NEO-PI의 1990년도판을 번역한 한국판 성격검사(노동부, 2000)에 의해 그리고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en의 자아탄력성 검사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연구결과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 따라 성격특성들 중 정서적 불안정성, 외향성 그리고 호감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남학생들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성실성에서 그리고 여학생들은 성실성에서만 작동모델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안정형 애착모델을 지니고 있는 대학생들이 일관성 있게 정서적 불안정성이 낮고 더 높은 수준의 외향성과 호감성 및 경험에 대한 개방성(여학생들의 경우에만)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여학생들의 호감성의 관계만을 제외하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남녀 학생들의 성격특성들과 높은 상관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회귀분석결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여학생들의 호감성만 제외하고 다섯가지 성격특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남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성실성 그리고 여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호감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

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 남녀 대학생들의 성격특성과 더 큰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와함께 여학생들의 경우에만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 따라 자아탄력성에 차이가 있었고 남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의해서만 그리고 여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여학생들의 경우에도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 자아탄력성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요약하면 양육자에 대한 애착의 질적 특성에 따라 형성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개인의 성격특성과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 더 다양한 성격특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Shaver와 Brennan(1992)은 물론 이 연구에서도 애착양식에서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애착 면접을 사용한 결과들(Bartholomew & Horowitz, 1991; Kobak & Sceery, 1988)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비록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기는 하지만,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몰입형 작동모델과 두려워하는/회피형 작동모델을 더 많이 지니고 있고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거부적/회피형 작동모델을 더 많이 갖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몰입형 작동모델은 부정적 자기모델과 긍정적 타인모델을 지니고 있고 두려워하는/회피형 내적 작동모델은 부정적 자기모델과 부정적 타인모델을 그리고 거부적/회피형 작동모델은 긍정적 자기모델과 부정적 타인모델을 갖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과도 일치하는 경향으로 볼 수 있었다. 대학생들을 포함하여 일반 성인들까지 광범위한 연구대상자들이 표집된다면,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서 성차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다섯가지 성격특성 중 정서적 불안정성에서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하위요인들

중 분노, 우울, 그리고 스트레스 취약성에서 여학생들이 더 높은 점수를 얻어 남녀간에 성격특성에서 차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여학생들이 남성들보다 더 불안정하다는 전통적 견해도 일치하였다.

네가지 유형의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 따라 남녀 학생 모두에서 성실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남학생들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서도 애착범주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한 Shaver와 Brennan (1992)의 연구에서, 비록 3범주 애착척도를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성실성 척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결과와 Shaver와 Brennan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섯가지(Big Five) 성격특성 중 성실성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과는 관련이 없는 성격특성이라고 볼 수 있었으나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서는 남녀간에 차이가 있어 후속연구를 필요로 하였다.

판별분석결과 네가지 애착범주에 따라 다섯가지 성격특성들이 유의하게 구분되지는 않았지만 Shaver와 Brennan의 연구와 일치되게 안정형 애착과 안정되지 못한 애착으로 구분될 수 있었고 안정형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은 안정되지 못한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보다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외향적이며 호감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애착의 질적 특성에 따라 개인의 성격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Kerns & Stevens, 1996; Bartholomew & Horowitz, 1991; Kobak & Sceery, 1988)의 결과들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었다. 특히 여학생들의 정서적 불안정성은 몰입형 작동모델과 거부적/회피형 작동모델 그리고 두려워하는/회피형 작동모델과 거부적/회피형 작동모델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어 자기모델이 부정적인 내적 작동모델의 소유자들이 더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나타냄으로써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자기-타인모델의 가정과도 일치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 청년후기 남녀 대학생들의 긍정적 성격 발달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동성부모에 대한 애착이 남녀 대학생들의 성격에 더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Kerns와 Stevens(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불일치의 이유로서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가정해볼 수 있다. 한국 문화에서는 서구 문화와 다르게 어머니가 거의 전적으로 자녀양육을 담당하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통하여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간접적 역할을 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의 성격발달에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연구와 Kerns와 Stevens(1996)의 연구에서 사용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는 측정도구가 상이할 뿐 아니라 사용된 성격검사들이 상이한 데 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척도를 함께 사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Bowlby(1979)의 제안대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의 질적 특성은 내적 작동모델의 형태로 지속되므로 개인의 성격은 내적 작동모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성격특성은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 외에도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선천적인 기질적 특성은 물론 다른 여러 변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적 작동모델만이 개인의 성격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변인일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연구에 사용된 설계로써 애착과 성격특성 중 어느 것이 선행변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변인인가가 확인될 수 없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실시하여 영향의 방향은 물론 인생초기 경험의 중요성이 규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애착이 개인의 성격특성과 관련되어 있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높은 애착은 남녀 모두의 성격특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섯 개의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5요인 모델의 차원척도가 사용되었으나 성격에 대한 접근방법에는 이러한 차원적 접근의에도 유형학적 접근이 존재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유형학적 척도인 Block(1978)의 CAQ (California Adult Q-sort)나 Myers와 McCaulley(1985)의 MBTI(Myers- Briggs Type Indicator)와 같은 척도를 함께 사용하여 개인의 성격유형을 측정하고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과의 관계를 연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성격의 차원척도와 유형학적 척도의 동시적 사용은 애착의 질적 특성과 성격의 관계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노동부(2000). 직업선호도검사 실시요강.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 장휘숙(1997a). 성인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 발달, 제10권 2호**, 123-138
- 장휘숙(1997b). 청년기의 애착과 자기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제4권 1호**, 88-106.
- 장휘숙(2000a). 애착과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I). **한국심리학회: 발달, Vol. 13, No. 2**, 115-130.
- 장휘숙(2000b). 애착과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II): 대처방식의 중재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발달, Vol. 13, No. 3**, 141-157.
- 장휘숙(2000c). 애착과 죽음불안 및 관련변인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발달, 제13권 제1호**, 127-143.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6, No. 5*, 427-453.

- Bartholomew, K., & Horowitz, L.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lock, J. (1978). The Q-sort method in personality assessment and psychiatric research.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2, 349-361.
- Bowlby, J. (1979).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Tavistock, New York.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Costa, P. T., Jr., & McCrae, R. R. (1985).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Griffin, D., & Bartholomew, K. (1994). Models of the self and other: Fundamental dimen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7, No. 3, 430-445.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 511-524.
- Kemp, M. A., & Neimeyer, G. J. (1999). Interpersonal attachment: Experiencing, expressing and coping with 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6, No. 3, 388-394.
- Kerns, K. A., & Stevens, A. C. (1996). Parent-child attachment in adolescence: Links to social relations and personal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5, No. 3, 323-342.
- Kobak, R. (1986). *Attachment as a theory of affect regulation*.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Denver.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Kobak, R. R., Cole, H. E., Ferenz-Gillies, R., Fleming, W. S., & Gamble, W. (1993). Attachment and emotion regulation during mother-teen problem solving: A control theory analysis. *Child Development*, 6: 231-245.
- Matas, L., Arend, R. A., & Sroufe, L. A. (1978). Continuity and adaptation in the second year: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later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49, 547-556.
- McCrae, R. R., & Costa, P. T. Jr. (1989a). Reinterpreting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57, 17-40.
- McCrae, R. R., & Costa, P. T. Jr. (1989b). The structure of interpersonal traits: Wiggins's circumplex and the five-factor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586-595.
- McCrae, R. R., & Costa, P. T. Jr. (1990). *Personality in adulthood*. New York: Guilford.
- Mikulincer, M., Florian, V., & Tolmacz, R. (1990). Attachment styles and fear of personal death: A case study of affect 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73-280.
- Myers, I. B., & McCaulley, M. H. (1985). *Manual: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Palo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Paterson, J. E., Field, J., & Pryor, J. (1994).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 fathers, and

-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 579-600.
- Paterson, J., Pryor, J., & Field, J. (1995).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and friends in relation to asp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 365-376.
- Shaver, P. R., & Brennan, K. A. (1992). Attachment styles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Their connections with each other and with romantic relationship outcom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18, No. 5, 536-545.
- Sroufe, L. A. (1983). Infant-caregiver attachment and patterns of adaptation in preschool: The roots of maladaptation and competence. In M. Permuter (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Vol. 16, pp. 41-81). Hillsdale, NJ: Erlbaum.

Attachment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Hwee 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college students' attachment styles and attachment to mother and father and their associations with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ego-resiliency. College students(N=607) completed questionnaires measuring attachments styles and attachments to partnts, NEO-PI and ego-resiliency. Attachment styl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Neuroticism, Extraversion and Agreeableness among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ego-resiliency of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Also attachments to mother and father were differently related to "Big Five" personality and ego-resiliency in college man and woman. This findings suggest that internal working model of attachment is related to personality traits and attachment to mother and father exert positive influence on personality traits.